

발해유민 디아스포라의 고고학적 증거들*

권오영**

초록 발해가 멸망한 후의 유민들의 디아스포라의 실상을 보여 주는 문헌자료는 많이 있으나, 고고학적 증거는 거의 주목받지 못한 상태다. 요나라의 무덤 중에서 거란인과 한인의 무덤을 변별하면서도 발해인의 무덤을 변별해 내지 못하는 이유는 문제의식과 방법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요나라의 무덤을 일일이 조사한 결과 발해 고분과 유사한 형태의 무덤이 다수 확인되었다. 다만 장제에서 거란적인 모습도 엿보이기 때문에 발해인의 종족적 정체성이 완전하게 유지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발해유민, 디아스포라, 거란인, 한인, 횡혈식석실묘, 시상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및 아시아의 문명교류 프로그램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메가아시아를 만든다: 사람, 사물, 사상의 이동”(2022.11.15.)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발해 디아스포라의 고고학적 증거들」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6A3A02065553).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1. 문제의식

최근 한국고대사 연구에서 뚜렷하게 하나의 분야를 이루어 가는 주제는 유민사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백제와 고구려 유민, 그리고 그 후손들이 당이나 일본에서 사망하여 현지의 무덤에 묻히고, 그 안에 부장한 묘지(墓誌)가 발굴조사나 도굴로 인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유민사 연구가 활기를 띠게 된 것이다.

필자는 한때 이러한 유민사 연구는 한국사의 범주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던 적이 있었다. 아메리카 초기 이주민의 역사는 미국사에 포함시켜야지 영국사에서 다룰 것이 아닌 것처럼, 백제, 고구려 유민사는 한국고대사의 본령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중국에서 간헐적으로 보고되는 자료를 따라가며 이루어지는 유민사 연구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민사에 대한 필자의 인식이 철저하게 일국사적 관점에서 있음을 곧 깨닫게 되었다. 고대사 연구의 대상을 유라시아 동부로 잡을 경우, 백제와 고구려 유민이 현재의 중국 영토, 일본 영토에서 전개한 역사적 사건들을 굳이 한국사 연구에서 배제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발해유민사도 마찬가지다. 발해 멸망 이후 부흥운동의 전개와 실패, 요에 편입된 발해인들의 행적을 추적하는 연구는 동북 아시아사, 중국 동북지역사, 유라시아 동부사, 한국사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동단국(東丹國), 후발해(後渤海), 정안국(定安國), 을야(兀惹), 흥료국(興遼國), 대발해(大渤海) 등에 대한 연구도 굵직한 주제가 될 수 있다.¹

거란족은 대흥안령의 남에서 발원하여 동부 몽골초원을 동에서 서로

1 이효형(2005), 「渤海의 멸망과 遺民의 諸樣相: 東丹國 관련 渤海遺民을 중심으로」, 『백산학보』 72, 백산학회; 이효형(2006), 「발해 부흥국가와 고려의 발해 계승의식」, 『역사와 경계』 60, 부산경남사학회, pp. 3-16; 이효형(2020), 「발해 유민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역사와 세계』 57, 효원사학회, pp. 29-30, 38-39.

호르는 시라무렌유역을 본거지로 삼은 집단이다. 4세기부터 시라무렌강과 노합하(老哈河) 일대에서 활동하였으며, 10세기 초에 흥기하여 중국 동북지방의 강자로 올라서게 된다. 요는 거란족이 주체가 되었지만 한인, 발해, 해(奚), 실위(室韋) 등 다양한 집단을 흡수하면서 성장하였다. 907년부터 1125년까지 존속하면서 오대 및 북송과 일시 병존하였다.

우리의 머릿속에 거란은 발해를 멸망시키고 고려를 침공한 세력 정도로 각인되어 있으나 남북국시대, 고려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거란의 역사는 한국의 남북국시대와 시간적으로 평행하기 때문에 상호 관련성이 예측된다. 발해의 문화가 거란에, 거란의 문화가 발해에 끼친 영향, 그리고 간접적으로 신라에 끼친 영향도 상정할 수 있다. 926년 발해가 멸망한 후, 요는 정치군사적 필요에 의해 발해 주민들을 집단적으로 사민하였다. 그 과정에서 발해의 선진적인 문화가 거란에 전해졌다고 이야기되고 있다.

발해유민에 대한 관심은 21세기에 들어와 본격화되었다. 최근에 출간된 여러 단행본을² 보더라도 백제, 고구려 유민사 연구에 비해 그 관심이 결코 뒤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발해유민사 연구는 발해가 존속할 당시 발해인의 종족 구성, 고구려 계승성, 요인(遼人)으로 편입된 발해인의 정체성, 말갈과 여진, 금의 건국 과정 등 매우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백제, 고구려 유민사보다도 훨씬 다양하고 역동적인 면모를 띠고 있다. 특히 유라시아 동부 중세 사회의 변동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쉬운 점은 요에 끌려간 객체로서의 발해인 연구가 자신의 운명을 개

2 이효형(2007), 『발해 유민사 연구』, 해안: 나영남(2017), 『요금시대 이민족 지배와 발해인』, 신서원; 임상선 편(2019), 『새롭게 본 발해 유민사: 불굴의 사람들, 발해 유민 이야기』, 동북아역사재단.

척해 간 주체로서의 발해인 연구보다 먼저 시작된 점이다.³ 발해 부흥운동사의⁴ 일환으로 유민사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국가가 멸망한 이후 유민의 처지로 전락할 경우, 모국과 새로운 소속 국의 사이에서 정체성에 혼선이 오거나 중첩되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경계인으로서의 발해유민을 주목하거나,⁵ 유민들의 활동을 디아스포라적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는⁶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발해 멸망 이후 유민들의 처지가 동일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의 운명과 처지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는데 이에 주목한 견해들이 이미 제출되었다.

우선 한규철은 멸망 이후 발해유민을 5가지 범주로 나누었다.⁷

- 거란의 통치력이 약한 곳으로 투화(投化)한 유민
- 거란에 협조한 지배층 유민
- 거란에 순종한 피지배층 유민
- 거란에 반독립적이었던 유민
- 거란에 저항하였던 유민

3 박순우(2019), 「10~14세기 '발해인' 정체성의 변질과 진화」, 『한국사연구』 184, 한국사연구회, pp. 177-178.

4 李孝珩(2002), 「발해 유민의 大渤海 건국과 고려와의 관계」, 『백산학보』 64, 백산학회; 박순우(2020), 「요대 발해인 정치체로서의 兀惹部 연구」, 『대동문화연구』 109,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5 이효형(2018), 「동아시아 境界人으로서의 渤海人과 渤海遺民」, 『동아시아고대학』 52, 동아시아고대학회.

6 金恩國(2011), 「南北國時代論과 渤海 Diaspora」, 『고구려발해연구』 40, 고구려발해학회. 송영대(2017), 「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본 渤海 유민의 고려 이주 양상과 특징 검토」, 『동아시아고대학』 46, 동아시아고대학회.

7 한규철(1994), 『발해의 대외관계사』, 신서원, pp. 237-238.

한편 김위현은 4가지로 범주화하였다.⁸

- 당지(當地)에 잔류한 유민
- 거란 영내로 강제 이치된 사람들
- 고려에 귀부한 사람들
- 오대나 송으로 도피한 사람들

전자의 견해는 거란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고, 후자의 견해는 유민의 향방에 무게를 둔 것이다. 여기에 다양한 변수를 추가하면 더 세분할 수 있겠지만 발해유민들의 처지는 대부분 저 정도의 범주에 포함될 것이다.

발해 멸망 후 유민들은 상경도(上京道)나 동경도(東京道), 중경도(中京道) 등지에 집단적으로 천사되었는데⁹ 가장 많았던 상경도에만 3만 3,800호에 달하는 발해인이 강제 이주되었다고 한다.¹⁰ 요가 존속하는 동안 발해인들의 다양한 활약상이 문헌에는 자주 등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고고학적 증거는 그리 많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발해유민의 존재 및 활동을 증명할 고고학적 자료가 없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후대에 모두 파괴되고 훼손되어서일까? 하지만 유독 발해유민의 물질적 증거만이 멸절되었을 리는 없다. 그렇다면 연구자들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고고학적 조사가 부족한 상황이거나, 이미 발굴조사된 자료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발해유민들의 물질적 흔적을 변별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또 다른

8 金渭顯(1998), 「渤海遺民과 後渤海 및 大渤海」, 『발해건국 1300주년』, p. 146.

9 李龍範(1973), 「遼代 上京·中京道の 渤海遺民」, 『백산학보』 15, 백산학회; 李龍範(1973), 「遼代 東京道の 渤海遺民」, 『史叢』 17, 鄭在覺博士華甲紀念論叢,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10 김위현(2007), 「요대의 발해유민 연구: 중화인민공화국 학자들의 논저에 대한 토론」, 『고구려연구』 29, 고구려연구회.

가능성은 발해유민들의 정체성 자체가 선명하지 않고 경계인의 모습을 보이거나 거란, 한족 등에 신속하게 동화되어서 변별하기 어려웠을 가능성도 있다. 이 중 어떤 추정이 본질에 접근한 것일까? 이 글은 이러한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2. 발해유민의 존재를 보여 주는 사례들

발해유민의 존재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료는 황제릉과 능을 관리하는 봉릉읍에서 나타나고 있다. 요의 초대 황제인 태조 야율아보기(耶律阿保機, 907~926년 재위)와 그 부인 순흠황후[淳欽皇后, 응천태후(應天太后)]의 합장묘인 조릉(祖陵)은 927년 요상경(遼上京) 인근에 마련되었다. 적봉시(赤峰市) 과림좌기(巴林左旗) 석방자촌(石房子村) 북서편에 해당된다. 조릉에 딸린 봉릉읍인 조주성(祖州城)의 축성과 관리에 발해인이 동원되었음은 문헌적 증거를 남기고 있으며,¹¹ 실제 발굴조사에서 발해계 연화문 와당과 온돌이 발견되었다.

상경에서는 발해의 마지막 왕 대인선(大諲譔)이 거주하던 곳으로 추정되는 성이 발굴조사된 바 있다. 이곳에 발해유민의 흔적이 더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은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외에 요주(饒州, 내몽고 임서현(林西縣)에 위치), 진주(鎭州, 몽골 친톨고이 발가스에 해당) 등에서도 연화문 와당이나 온돌이 발견되어 발해유민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다.¹² 숫적으로 극히 부족하지만 묘지를 통해 발해유민의 존재를 살펴볼 수도 있다.¹³

-
- 11 임상선(2013), 「遼代 渤海人の再遷徙 事由와 그 內容」, 『백산학보』 97, 백산학회, p. 179.
 12 이효형(2015), 「발해 유민사 관련 고고학 자료의 검토」, 『고구려발해연구』 52, 고구려발해학회, pp. 310-312.
 13 박순우(2020), 「요대 발해인 고모한(高模翰)관련 기록의 검토와 후손들의 활동 연구」, 『동방학지』 191,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문제는 발해유민의 정체성이 과연 어느 정도였을지가 분명치 않다는 점이다. 발해 멸망 후 유민들의 운명은 매우 다양하였다. 우선 요에 편입된 발해인과 고려에 편입된 발해인의 적응에서 큰 차이가 있었음이 언급되고 있다.¹⁴ 심지어 동단국(東丹國)처럼 요의 경내에 존재하면서 발해 나름의 정체성과 운동성이 유지된 경우도 있었다.¹⁵

요에 편입된 발해인들은 집단적으로 이주되었고,¹⁶ 때로는 집단적으로 저항하였다. 연파(燕頗), 대연림(大延琳), 대력추(大力秋), 고욕(古欲), 고영창(高永昌) 등 발해유민이 주도한 대규모 반란사건을 통해 알 수 있다. 대연림의 경우 동경장군(東京將軍)이라고 불린 것을 볼 때, 동경에 거점을 두고 반란을 일으켜 흥료국(興遼國)을 건국하였다. 이 시점은 1029년으로서 발해 멸망 후 100년이 넘게 지난 시점이다. 고욕의 반란이 1115년, 고영창의 반란 및 대발해(大元) 건국이 1116년임을 고려하면 발해유민들의 정체성은 발해 멸망 이후에도 장기간 유지되었던 셈이다.¹⁷ 요에 대한 반란이 진압되면 발해유민들은 다시 여러 지역으로 강제 이주되었다.¹⁸

요에 편입된 이후에도 일부 발해유민들이 종족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음은 문헌자료에 의해 증명된다. 『요사』(遼史)와 『금사』(金史)에 이름을 남긴 발해유민의 수가 134명에 달한다는 지적은¹⁹ 발해 멸망 이후에도 발

14 박순우(2022), 「'발해유민'인가 '발해인'인가?」, 『역사비평』 140, 역사비평사, pp. 509-510.

15 임상선(2019), 「渤海 멸망후 건립된 東丹國의 외교활동」, 『역사와 교육』 29, 역사와 교육학회, p. 179.

16 金在善(2005), 「契丹의 渤海遺民 移住政策의 要因」, 『신라문화』 26,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羅永男(2013), 「契丹의 渤海遺民에 대한 移住政策」, 『동양사학연구』 124, 동양사학회.

17 이효형(2006), 「발해의 멸망·유민사에 대한 연구현황과 과제」, 『부대사학』 30, pp. 17-1; 박순우(2022), 「'발해유민'인가 '발해인'인가?」, 『역사비평』 140, 역사비평사, pp. 509-510.

18 임상선(2013), 「遼代 渤海人의 再遷徙 事由와 그 內容」, 『백산학보』 97, 백산학회.

19 徐炳國(2006), 「渤海遺民史 研究」, 『고구려연구』 25, 고구려발해학회, p. 10.

해유민의 활동이 활발하였음을 의미한다.

고려에 유입된 발해유민들에 대해서는 문헌적인 근거로 논의가 이루어 지지만²⁰ 이들의 고고학적 물질문화의 양상, 즉 고려의 문화와 다른 점, 동화되어 가는 점 등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려에 편입된 발해유민들도 각자가 처한 사회적 조건에 따라 다양한 지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요가 멸망한 후 금과 원에 이르러서도 발해유민의 활약이 포착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 나름의 정체성이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그 성격은 발해 멸망 직후와는 사뭇 달라졌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발해만이 아니라 유라시아 차원으로 시각을 확장시켜 유민의 향방을 디아스포라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방법론이 요망된다.

예를 들어 고구려에 들어온 동수(冬壽)와²¹ 진(鎭)의 무덤이 과연 어느 정도 중국적·선비적 특색을 유지하고 고구려적 특성과 결부되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길림성 집안시 우산하 3319호묘는 구조와 출토 유물 면에서 고구려인이 아닌 한인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적은 고구려였으나 종족적으로는 소그드, 돌궐, 거란, 말갈로 연결되는 인물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고구려 고고학에서 이들의 존재를 변별하려는 시도는 보이지 않는다.

발해 고분 연구에서는 고구려계 주민과 말갈계 주민을 변별하는 연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이에 더하여 거란계 발해인, 한인계 발해인의 무덤에 대해서도 관심이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유라시아지역에서 유민의 묘제와 장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돌궐의 사례를 보자. 돌궐 묘제와 장제의 특징은 화장의 성행, 묘사

20 박홍갑(2007), 「발해 유민 대씨의 한반도 정착 과정: 영순현과 영순태씨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16.

21 안악 3호분의 피장자 논쟁과 무관하게 동수라는 인물이 고구려에 들어온 이종족 출신인 점은 분명하다.

(墓祠)와 석인(石人), 발발, 입비(立碑), 단인장, 말의 순생 등을 특징으로 한다. 매장의 단위는 단인장이 주류였지만 서서히 부부 합장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런데 돌궐인의 무덤에서 중국의 강한 영향이 포착되기 시작한다. 1994년 섬서성(陝西省) 함양시(咸陽市)에서 아사나회도(阿史那懷道, 670~727) 부부 합장묘가 발견되었다. 전체 묘역은 160m², 도마(陶馬), 도우(陶牛), 기마용(騎馬俑), 복두용(幞頭俑), 삼채(三彩)낙타, 각화분(刻花盆), 채회관(彩繪罐) 등 500여 점의 채회문물과 2건의 묘지(墓誌)가 발견되었다. 묘지에는 그의 생애와 당과의 교섭이 기록되어 있다. 묘혈(墓穴)은 평면이 꽃잎처럼 생겼으며, 현실 내부는 인물 위주의 벽화로 구성되었고 이중으로 된 석문(石門)이 있었으며 석곽의 네 면은 선각하여 화조(花鳥), 만초(蔓草), 기린, 익조(翼鳥), 봉황 등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고 한다. 아사나회도(阿史那懷道)는 서돌궐 10대 카간으로서 당에 투항하여 서안에 정착하였으며, 부인은 함양인(咸陽人) 안씨(安氏)이다. 무덤의 구조, 벽화, 부장품 등이 돌궐의 고유한 묘장제에서는 완전히 벗어나 있다. 묘지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서돌궐 카간의 무덤으로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중국 문화와 접촉하면서 돌궐 고유의 묘장제가 변화한 또 하나의 사례는 울란 헤렘 벽화묘다. 몽골의 불간 아이막의 쇼론 봄바가르유적에서 발견되었는데, 축조 시기는 7세기 무렵이다. 생토를 굴착하여 경사지고 긴 묘도(墓道)를 연결한 횡혈식 무덤으로서 당나라 전실묘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묘도와 천장, 현실에 사신도, 인물도, 괴수, 연화보주문 등을 그렸다. 무덤의 주인공은 목관 안에 안치되었는데, 금화, 금장식, 금제 잔 등을 따로 비단으로 싸서 인골 주위에 배치하였다. 목관 바깥에는 나무로 만든 2개의 제대(祭臺)를 배치하고 그 위에 말, 낙타, 마차 등의 소형 도용을 배치하였다. 이외에 진묘용 1쌍[인물, 인면수신(人面獸身)], 금관, 금동제 재갈과 등자 모형을 부장하였으며, 비잔틴제국 금화와 사산조 페르시아 은화를 방제한 50점의 화폐도 출토되어 서역과의 교섭을 증명하고 있다. 이 무덤에서도

돌궐적 묘장제는 이미 사라져 버렸다.

반면 북조와 수당에 들어온 소그드족의 경우는 고유 장제를 일부나마 유지한 경우가 보인다. 산서성(山西省) 태원(太原) 우홍묘(虞弘墓)는 592년에 매장된 우홍과 598년에 매장된 부인의 합장묘다. 부부는 현실에 마련된 가옥 모양의 관곽 안에 안치되어 있다. 이러한 시설은 소그드족의 종교인 조로아스터교와 관련된 장골기, 즉 옷사리의 다른 표현이다. 관곽은 흰 대리석으로 병풍처럼 벽을 가꾸한 구조로서, 표면에는 다양한 생활상이 부조로 묘사되어 있다. 가장 중심적인 장면은 주인공 부부가 좌상에 앉아서 주연을 즐기는 모습이다. 서안의 북주 안가(安伽) 묘에서도 병풍을 돌린 좌상, 즉 위병석탑(圍屏石榻)[혹은 위병석관상(圍屏石棺床)]이 설치되었다. 유사한 유물이 일본의 미호박물관, 프랑스의 기메동양미술관 등지에 소장되어 있다. 조로아스터교 신자로서 옷사리에 매장되었어야 할 소그드인들이 동쪽으로 와서 새로운 중국적 묘제(석실묘, 전실묘)를 수용하면서 자신들의 고유한 묘장제를 버리지 않고 변형시켜서 위병석탑이라는 특색 있는 관곽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상의 사례를 볼 때, 요에 흡수된 발해유민의 무덤은 다양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발해의 묘장제를 충실히 지킨 경우부터 거란이나 중원식의 묘장제에 완전히 동화된 경우를 양 극단으로 하고 그 내부에 다양한 편차를 보이는 형태일 것이다. 그 원인은 요 사회 내에서 발해유민들이 처한 처지의 다양함이다. 거란이나 중원식 묘제에 완전히 동화된 발해유민은 묘지가 출토되지 않으면 그 정체를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다. 반면 발해 묘제와 장제를 간직한 유민의 무덤은 묘지가 없더라도 그 성격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발해유민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

3.1. 발해유민묘의 존재

요는 다종족 국가였으므로 요대묘에²² 묻힌 피장자는 거란인만이 아니라 한인, 실위족(室韋族)²³, 해족(奚族)을²⁴ 포함한다. 즉 요대묘는 다양한 종족의 무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조사된 요대묘에서 발해유민묘는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발해유민들의 종족적 정체성을 억누르기 위한 요의 정책에 의해 발해유민들이 발해적인 속성을 표출하는 무덤을 축조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이미 앞에서 그 가능성은 여러 차례 부정되었지만 여기에서 대공정(大公鼎)의 사례를 추가하고자 한다. 그의 증조부는 대충(大忠), 부는 대신(大信)으로서 모두 요의 관리였다. 대공정은 중경으로 사민되어 1121년에 79세로 사망하였는데 이때까지도 발해인의 정체성이 유지되

22 일반적으로 요의 무덤은 요묘(遼墓)라는 용어로 표현되지만, 실은 거란인이 묻힌 경우, 한인이 묻힌 경우, 발해인이나 해(奚), 실위(室韋), 여진(女眞) 등 다양한 종족이 묻힌 무덤들이 뒤섞여 있다. 이런 까닭에 요가 존속한 시기(907~1125)에 축조된 무덤은 요대묘(遼代墓)라 칭하고 그 안에서 종족별 구분, 즉 거란인묘, 한인묘, 발해유민묘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요 건국 이전의 거란인묘, 요 멸망 이후의 거란유민묘는 요대묘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금이라는 왕조가 존속한 시기(1115~1234)에 축조된 모든 무덤을 금대묘(金代墓)로 통칭할 것이다. 이는 시간적 구분으로서, 내부적으로는 여진인묘, 거란인묘, 발해유민묘, 한인묘 등이 존재한다. 금 건국 이전의 여진인묘, 금 멸망 이후의 여진유민묘는 포함되지 않는다.

23 통나무형 목관을 사용하였는데 내몽고 호룬페이맹(呼倫貝爾盟) 서우주이(西烏珠爾)유적이 대표적이다. 白勁松(1989), 「陳巴爾虎旗西烏珠爾古墓清理簡報」, 『遼海文物學刊』 2; 조운재(2021), 「요·금」, 『동북아시아 고고학개설 II: 역사시대 편』, 동북아역사재단 북방연구소편, pp. 500-501.

24 거란인묘와 별 차이가 없는데 평면 팔각형의 전실묘인 김립성 이수현(梨樹縣) 호가둔(胡家屯) 1호묘가 여기에 속한다. 뤼스핑(2004), 「요대 묘실벽화의 발굴과 연구」, 『미술사는 단』 19, 한국미술연구소, p. 94.

었다. 따라서 발해유민의 정체성 소멸이란 이유는 성립할 수 없다.

그다음은 조사 지역의 편중성으로 인하여 발해유민묘가 발견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요대묘는 내몽고, 흑룡강성, 요령성, 하북성, 산서성 등지에서 넓게 확인되고 있다. 발해 멸망 직후 유민들의 이주가 이루어진 지역, 부흥운동 내지 반란이 진압된 후에 집단적으로 천사된 지역은 문헌으로 확인된다.²⁵ 상경과 중경에 집단적으로 거주하던 발해인들의 정황은 송의 사신들에 의해 목격되고 있다.²⁶ 그런데 발굴조사가 비교적 많이 진행된 상경과 중경지역에서도 발해유민묘는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조사지역의 편중은 발해유민묘 부재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

발해유민들이 거관이나 한인들의 묘제와 장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구분이 어려웠을 가능성도 상정할 수 있다. 발해인의 사회적 처지에 대해서는 요 영역 내의 한인(漢人)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는 견해,²⁷ 차별받은 것으로 보는 견해로²⁸ 나뉜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현재 중국 학계의 견해를 따를 경우 요대묘에서 한인묘는 여럿 확인되었으나 발해유민묘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가 한인과 발해인이 겹쳐지면서 발해인들이 종족적 정체성을 상실하였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²⁹ 즉 요대묘 중 한인묘로 간주된 무덤 중에 발해유민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마지막으로 발해유민의 무덤이 실제로 존재하고 조사되었지만 연구자

25 林相先(2017), 「渤海國과 契丹(遼) 關係史의 研究爭點과 向後 課題」, 『중국사연구』 106, 중국사학회, pp. 13-16.

26 박순우(2019), 「10~14세기 '발해인' 정체성의 변질과 진화」, 『한국사연구』 184, 한국사연구회, pp. 185-186.

27 임상선(2014), 「북방지역 種族의 繼承關係 검토: 靺鞨·女眞·滿洲族을 중심으로」, 『고구려발해연구』 50, 고구려발해학회.

28 徐炳國(2006), 「渤海遺民史 研究」, p. 48.

29 김위현(2007), 「요대의 발해유민 연구: 중화인민공화국 학자들의 논저에 대한 토론」, p. 588.

들이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발해유민묘를 변별해 내는 방법론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다.

요대묘에서 발해유민묘를 변별하려는 국내 학계의 연구는 거의 없다. 도성과 능원 건설에서 발해유민의 영향이 지대하였다는 주장은 많이 보이지만, 무덤에 주목한 국내 학자는 이효형이 유일한 것 같다. 그는 중국인 학자의 견해를³⁰ 인용하여 대소현(大素賢)의 무덤을 주목하였다.³¹ 대소현은 동단국(東丹國)에서 좌차상이란 중요한 관직을 맡았던 인물로서 발해 왕족 출신으로 추정된다. 그의 무덤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흑룡강성 영안시(寧安市)에서 발견되었다. 파괴가 심하여 분명하지는 않으나 무덤의 구조는 전들로 쌓은 다실묘로서 벽화가 많이 그려진 것이다. 대파된 묘지의 일부가 발견되었는데, 그중에는 “동단”(東丹), “상”(相), “소현”(素賢) 등의 글자가 확인되어 대소현의 무덤으로 추정된 것이다. 그런데 무덤의 구조와 벽화의 제재, 그리고 인물 표현 등이 거란족의 요대묘와 매우 흡사하다. 게다가 대소현이 활동하던 동단국은 928년 요양 일대로 옮겨 가는데 멀리 떨어진 영안시에 그의 무덤이 있는 것도 의문을 남긴다. 이 무덤이 대소현의 무덤이 맞다면 발해유민 중 최고 귀족들은 거란족의 묘제를 채택한 셈이다.

바이건싱의 글을³² 통해 이 무덤의 구조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이실(耳室)을 갖춘 다실묘로서 주실은 원형 평면에 천장은 궁륭형인 전실묘다. 전형적인 거란 귀족묘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석곽의 잔편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현실 내에 석곽을 안치하는 것 역시 거란 귀족의 묘제다. 벽화는 “묘벽 목판 위에 상감해 넣었다”고 하는데 이 구절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으나 현실에 가득 차게 목곽을 마련하는 묘제 역시 거란 귀족묘와 통한다. 추

30 바이건싱(2008), 「고구려·발해 유민 관련 유적·유물」, 『중국 학계의 북방민족·국가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pp. 245-247.

31 이효형(2015), 「발해 유민사 관련 고고학 자료의 검토」, pp. 301-302.

32 바이건싱(2008), 「고구려·발해 유민 관련 유적·유물」, pp. 245-247.

정해 보면 평면 원형의 현실 내벽에 잇대어 목곽을 마련하고 그 안에 석곽을 마련한 후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한 것으로 복원된다. 전형적인 거란 귀족의 묘제를 취하고 있다. 요대묘에서 발해유민묘가 잘 확인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대소현의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을 것이다. 그의 집안처럼 요에서 중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거란의 묘제와 장제를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을 것이다. 대부분의 발해유민들은 묘제와 장제에서 발해 묘장제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요대묘에서 발해유민묘를 찾기 위해서는 발해 묘장제와 거란 묘장제의 차이를 변별할 수 있어야 한다.

3.2. 발해와 거란의 묘장제 비교

거란족의 고유한 장제는 시신을 나무 위에 올려놓는 수장(樹葬), 화장, 구덩이에 넣는 토장, 나무 인형 안에 시신을 안치하는 목장(木葬) 등 다양하다. 유해를 육탈시키는 수장을 실행하면 땅자의 뼈가 산란될 위험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신의 얼굴에 씌우는 면구(가면), 몸을 묶어 주는 그물망, 신 등의 금속제 장의(葬衣)가 등장하게 된다. 금속제 장의는 요 건립 이후에 거란 귀족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채용되어 거란인묘 장제의 최대 특징이라 할 수 있다.³³

요 건국 이전 거란인의 묘는 비교적 단순한 형태여서 평면 장방형의 작은 수혈식 토광을 굴착하고 내부에 목관이나 석관을 마련하는 정도였다. 요가 건국된 이후에는 주변 국가의 영향으로 황혈식으로 전환하는데 재료는 전돌과 돌 모두 존재한다. 내부에 벽화를 그리는 무덤도 유행하는데 처음에는 중원식 제제가 주류를 이루지만 점차 거란인들의 풍모와 생활을 묘사한

33 현재까지 내몽고와 요령성 일대에서 금속제 장의가 발견된 요대묘는 60기 정도다. 陳永志(2011), 「出土文物から見た契丹人の葬送習俗」, 『草原の王朝 契丹』, 九州國立博物館, p. 15.

그림이 증가한다.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당과 오대의 묘제가 커다란 영향을 끼친 점이 강조되지만, 발해 묘제의 영향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요대에 가장 성행한 전실묘는 대부분 지하에 깊숙이 마련된 횡혈식으로서, 현실의 평면은 방형, 원형, 육각형, 팔각형 등 다양한 편이다. 요대 전실묘를 대표하는 것은 동릉(興宗), 중릉(成宗), 서릉(道宗) 등 3개의 황제릉으로 구성된 경릉(慶陵)이다. 동릉은 전실(직경 2.4m)-중실(직경 5.6m)-후실(직경 5.14m) 및 전실과 중실 동서에 딸린 이(축)실(직경 3m 정도) 등 총 7개의 묘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로 연결통로로 연결된다. 묘실의 평면은 원형이며 천장은 궁륭형이다. 중실 벽화가 특히 잘 남아 있는데 춘하추동의 산수를 표현하였다. 황제릉과 귀족묘에서는 대규모 능원을 조성하고 친족관계의 복수 인물들을 동일한 능원 내부에 매장하는 경우가 잦다.

요대묘에서는 전실이건 석실이건 현실 벽면에 나무를 잇대어 목곽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입구에서 먼 안벽에 붙여서 석제나 목제 시상을 마련하고 그 위에 머리를 동쪽으로 향한 시신을 안치한다. 입구에서 보면 시신은 머리를 우측(동향)으로 두고 횡방향으로 안치된 모습을 띠게 된다. 목관에 시신을 넣고 시상 위에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시상 위에 그대로 시신을 안치하는 경우가 더 많다.³⁴ 부부가 매장의 단위를 이루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가족장, 순장의 흔적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거란인들은 시신의 부패 방지를 위해 해부학적 처치를 실행하였다. 송(宋)의 문유간(文惟簡)이 저술한 『노정사실』(廣廷事實)에 의하면 “거란인 부유한 집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칼로 배를 갈라 위장 등 내장을 꺼내고 뱃속을 씻은 후, 향, 소금, 명반 등을 섞어 넣고 오색의 실로 봉합한다. 뽕족한 갈대 줄기로 피부를 찢러 피와 기름을 짜내고 금은으로 가면을 만들고 구리 실을 수족에 감는다.”라고 하였다. 시신에 대한 해부학적 처치와 금속제 장의가 결부되는 양상을 잘 설명하고 있다. 이외에 거란인묘의 특징으로 들

34 관을 사용한 경우는 관상, 관 없이 시신을 올려놓는 경우는 시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 있는 것은 묘지의 선택과 풍수 정도다.

수적으로 거란인묘 다음으로 많은 한인묘는 평면 원형의 단실묘(대부분 전실묘)인 경우가 많으며, 묘지의 부장이 매우 성행한다. 부장품은 화려한 자기보다 회색 명기가 주류를 이룬다.³⁵ 벽화의 제제는 거란인과 한인의 제제와 특색이 서로 공유되면서 벽화의 내용만으로 종족성을 변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묘지가 없다면 종족성을 판별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사례가 요 초기부터 큰 세력을 떨친 한지고(韓知古)의 후손들이 묻힌 적봉시(赤峰市) 파림좌기(巴林左旗) 백음한산(白音罕山)의 한씨 가족묘다. 벽화에 거란인과 한인을 동일한 비중으로 표현하고, 거란 남성의 특징적인 곤발(髡髮)을 표현하고 있어서 거란문화와 중원문화의 융합된 모습을 보여 준다.³⁶ 따라서 묘지가 발견되지 않으면 한인묘도 거란인묘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잦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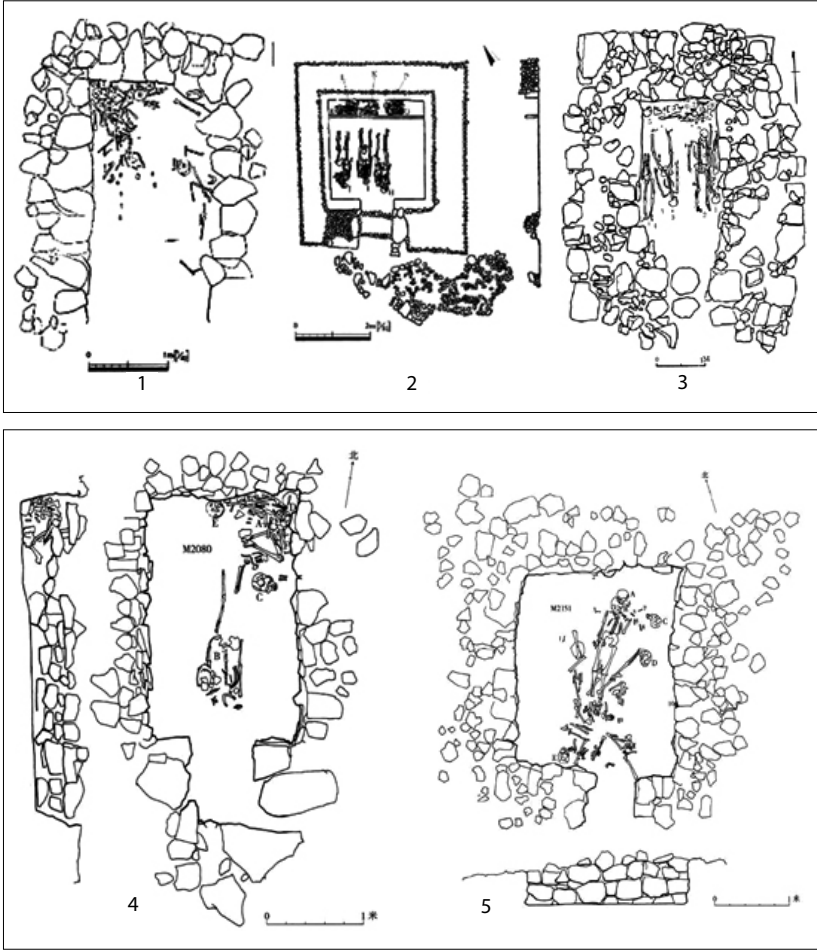
요에 편입된 발해유민들이 발해 존속 시의 묘장제를 일정 기간 간직하였다는 전제에서 발해의 묘제와 장제를 간단히 정리해 본다. 발해에 선행하였던 고구려에서는 이미 수혈계 묘제는 종로되고 횡혈계 묘제가 성행하였던 반면, 말갈족의 경우는 수혈식의 토광묘(목관, 목곽)가 주 묘제였다. 그 결과 발해 건국 이후에 수혈계와 횡혈계 묘제가 병존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횡혈계 무덤은 전실묘와 석실묘가 공존하며, 수혈계 무덤은 목관묘, 목곽묘, 그리고 토광 내에 아무런 장구 없이 매장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다. 중앙과 지방의 차이도 매우 커서 연해주의 경우는 발해 국가 성립 이후에도 중앙의 묘제와 무관하게 물길-말갈계의 토광묘 계통 무덤이 성행하였다.

발해의 중심부에서는 기본적으로 고구려계 평면 (장)방형의 횡혈식 석

35 권오영(2022), 『부여·고구려·발해 고분과 유라시아 북부 고분의 비교』, 한국학중앙연구원, p. 193.

36 東潮(2007), 「遼代壁畫資料」, 『人文社會文化研究』, 德島大學總合科學部, p. 141.



출처: 중앙문화재연구원(2014), 『발해의 고분문화』 1, 2.

[그림 1] 발해의 석실묘

- 1. 육정산 1호묘, 2. 대성자 1호묘, 3. 대주둔 1호묘,
- 4. 흥준어장 2080호묘, 5. 흥준어장 2151호묘

실묘 내부에 목관을 안치하는 장법이 대세였다(그림 1). 돈화 육정산고분군 석실묘에서 이러한 양상이 잘 드러난다. 영안 흥준어장고분군에서도 횡혈식 석실묘 내부에 목관이 안치되는 것이 주류이지만 전실묘, 장방형의 수

혈식 석곽묘도 적지 않다.

횡혈식 석실묘라고 하더라도 지방양식이 존재하여서 함경북도 청진 일대에는 평면이 원형, 타원형, 다각형 등을 띠고 내부에 석관이 안치된 특이한 횡혈식 석실묘도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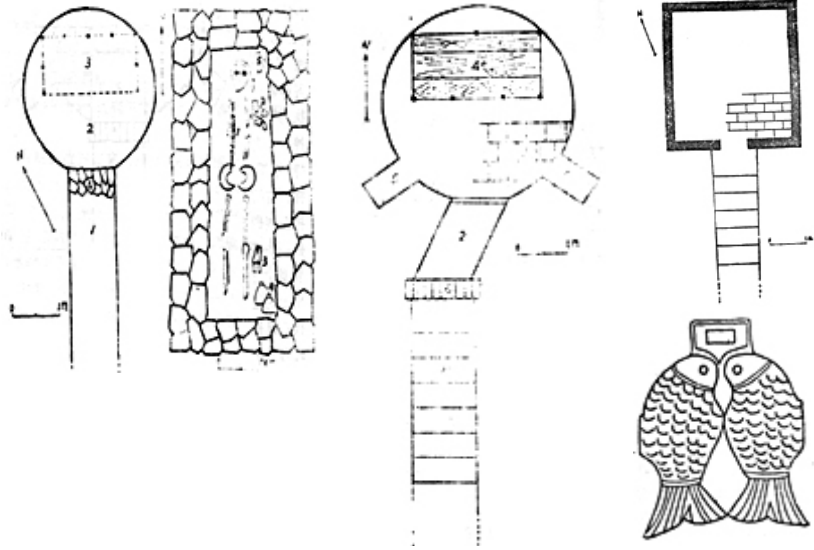
영안 삼릉둔처럼 능원을 갖춘 점, 정혜공주묘·정효공주묘처럼 묘지(비)를 갖춘 점은 요의 거란인묘와 발해 고분이 공통적이다. 반면 매장의 단위는 부부합장이 주류인 요대묘와 부부를 넘어서는 다인장이 실시된 발해 고분이 큰 차이를 보인다. 다인장 고분 중 일부는 순장의 흔적으로 볼 수 있다. 다인장을 치르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선행 유해를 정리하고 집골이 이루어지지만, 기본적으로는 묘실의 장축 방향에 평행하게 시신을 안치하는 발해의 경우는 머리가 동향을 취하면서 장축에 직교하게 안치하는 요대 거란인묘와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3.3. 발해유민묘의 확인

요대 거란인묘와 발해 고분의 차이점을 인지하면서 요대묘 중에서 발해유민묘의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추출해 보자. 발해유민이 천사되어 거주한 지역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야겠지만 발해유민들의 천사과정을 일일이 추적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다수의 발해유민이 거주하였던 상경(上京) 임황부[臨潢府, 현재 내몽고 적봉시와 통료시(通遼市)], 동경(東京) 요양부(遼陽府, 요령성 요양시 일원), 중경(中京) 대정부[大定府, 내몽고 영성현(寧城縣) 일원] 인근의 석곽묘나 석실묘가 우선적으로 주목되어야 한다.

내몽고 적봉시 파림우기(巴林右旗) 오주일산(烏珠日山) 요대묘([그림 4]의 좌)는³⁷ 평면 방향의 횡혈식 석실묘로서, 장축은 서북-동남향이다. 단실이며, 중앙 연도식, 천장은 파괴가 심하여 분명치 않으나 공룡형일 가능성이

37 巴林右旗博物館(1992), 「巴林右旗烏珠日山發現一座遼墓」, 『內蒙古文物考古』 1·2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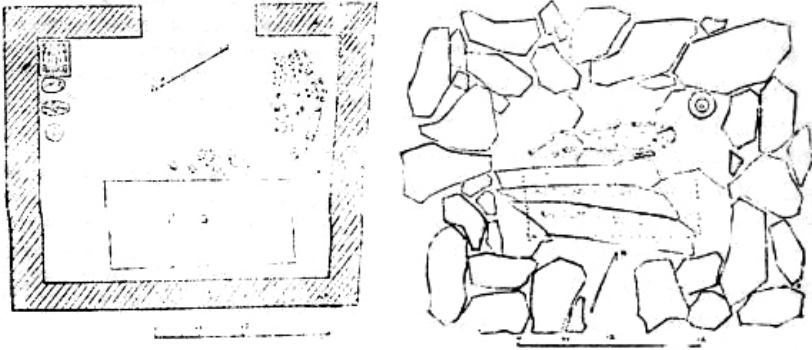
출처: 項春松(1982), 「上燒鍋遼墓群」, 『內蒙古文物考古』 2.

[그림 2] 상소과(上燒鍋) 2, 3, 5호묘 및 5호묘 출토 쌍어형 패식

있다. 장축과 직교하여 부부로 추정되는 남녀 1쌍이 합장되었는데 두향은 모두 동향이다. 부장품은 토기 병 2점, 자기 완 1점, 용도미상 철기 1점으로 단순하다. 무덤의 구조와 재료는 발해 석실묘와 흡사한 반면 두향이 동향이고 무덤 장축과 직교한 점은 요대 거란묘와 상통한다. 보고자는 요대 초기의 빈민묘로 보고 있다.

적봉시 객나심기(喀喇沁旗) 상소과(上燒鍋)에서는 요대 전-중기에 속하는 무덤 5기([그림 2])가 조사되었는데³⁸ 매우 특이한 구성을 보인다. 1, 2, 4호묘는 현실 평면 원형의 전실묘로서 시상이 안벽에 마련되고 5호묘에서는 장의(葬衣)가 발견되어 거란인이 묻힌 것으로 판단된다. 문체는 5호묘가 방형의 전실묘란 점, 그리고 출토된 쌍어형 패식이 연해주의 발해 유적인

38 項春松(1982), 「上燒鍋遼墓群」, 『內蒙古文物考古』 2.



출처: 蘇日泰(1982), 「科右中旗巴拉嘎遼墓」, 『內蒙古文物考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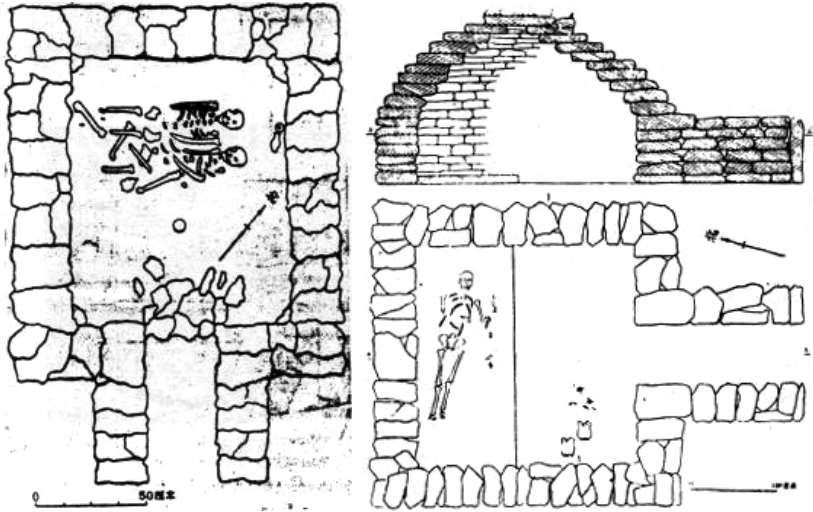
[그림 3] 파찰랍알(巴拉嘎) 1호묘(좌)와 2호묘(우)

니콜라예프카 성 출토 물고기 모양 부절과 상통하는 점이다. 3호묘는³⁹ 남북 장축의 장방형 수혈식 석곽묘다. 피장자는 남성 1인으로 두향은 북향이 며 철촉, 철검, 철소도와 마구를 부장한 점에서 무장적인 면모를 보인다. 중국 학계에서는 평민묘로 간주하고 있는데 두향이 북향인 점은 비 거란적이다. 발해 석곽묘와 비교할 만한 무덤이다. 결국 이 5기의 고분에는 발해적인 속성과 거란적인 속성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내몽고의 동북 편에 해당되는 흥안맹(興安盟) 과우중기(科右中旗) 파찰랍알(巴拉嘎)에서 횡장방형 전실묘 1기((그림 3)의 좌)와 역시 횡장방형 석실묘 1기((그림 3)의 우)가 발견되었다.⁴⁰ 전실묘(1호묘)는 안벽 쪽에 시상을 마련하였으며 부장품에서 마구의 비중이 높다. 석실묘(2호묘)는 안벽 쪽에 20대 여성 1인이 동향으로 안치되어 있었다. 특이한 점은 묘실 바닥에 요갱이 있고 그 안에서 성인 남성 1인이 발견되었는데 순장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무덤의 구조는 발해적, 두향은 거란적이다. 남성 1인이 순장된 것이 맞다면 거란보다는 발해와 관련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39 李逸友(1991), 「內蒙古遼代契丹人墓葬的形制和分期」, 『北方民族文化』 增刊.

40 蘇日泰(1982), 「科右中旗巴拉嘎遼墓」, 『內蒙古文物考古』 2.



출처: 巴林右旗博物館(1992), 「巴林右旗烏珠日山發現一座遼墓」, 『內蒙古文物考古』1·2期
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1991), 「寧城縣小塘土溝遼墓」, 『內蒙古文物考古』1期.

[그림 4] 오주일산(烏珠日山) 석실묘(좌)와 소당토구(小塘土溝) 1호묘(우)

상경도(上京道) 관할의 하주(下州)에 해당되는 부신현(阜新縣)에서는 재미있는 현상이 관찰된다. 대고분향(大固本鄉) 요대묘는 방형 평면에 궁륭형 천장, 중앙 연도, 부부합장이란 점에서 공통적이다. 보고자는 시기를 요대 전기, 피장자는 거란 무관으로 보고 있으나 발해 고분과의 공통성은 언급하지 않았다.⁴¹ 해력판촌(海力板村) 요대묘는⁴² 방형 평면, 궁륭형 천장, 중앙 연도식 전실묘로서 재료만 전돌일 뿐 대고분향(大固本鄉) 석실묘와 흡사하다.

중경도에 속하는 내몽고 영성현(寧城縣) 소당토구(小塘土溝)에서는 석실묘 4기가 조사되었는데 그중 1호묘([그림 4]의 우)는 남북 장축, 평면 방형,

41 李宇峰(1993), 「遼寧阜新縣大固本遼墓發掘簡報」, 『博物館研究』2.

42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阜新市文化局文物組·阜新縣文物管理所(1991), 「阜新海力板遼墓」, 『遼海文物學刊』1.

궁륭형 천장, 중앙 연도식의 횡혈식 석실묘다.⁴³ 무덤의 장축과 직교하게 생토를 이용하여 만든 시상 위에 1인이 동향 매장되었고, 자기 1점, 철제 무기류와 마구류가 부장되었다. 역시 무덤의 구조는 발해 고분과 흡사하지만 매장 방식은 거란인묘와 상통한다.

영성현 소류장자(小劉仗子) 2호묘는⁴⁴ 동서로 긴 횡장방형 전실묘로서 연도는 전실의 남북 중앙에 달려 있다. 피장자는 안벽 쪽에 마련된 시상 위에 안치되었는데 머리는 동향이다. 삼채, 백자, 황유, 갈유 용기 다수, 철촉, 동경 등이 부장되었다. 중앙연도식의 횡장방형 전실묘란 점은 발해적이지만 시상, 두향, 부장품의 구성은 거란인묘와 통한다. 1, 3, 4호묘는 수혈식 석곽묘란 점에서 거란인묘와는 거리가 있다. 수혈식석곽묘는 대체로 요대 전기에 나타난다고 한다.⁴⁵

동경 요양부 지역은 발해 멸망 직후 세워진 동단국(東丹國)이 928년 흘한성(忽汗城)에서 천사되어 982년 폐지될 때까지 그 중심이었다.⁴⁶ 당연히 동단국과 관련된 유적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요양 삼도호(三道壕)에서 길이 2m, 너비 0.8m 정도의 목관묘가 발견되었다. 보고자는 요대 초기의 거란족 무덤으로 보고 있지만⁴⁷ 말갈, 혹은 말갈계 발해유민과 관련되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요양시 융창(隆昌)에서 발견된 요대묘는 방형 평면의 석실묘로서 남북 장축, 중앙연도식이다. 안벽인 북벽에 잇대어 시상이 마련되고 이 위에 부부로 추정되는 남녀 1쌍

43 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1991), 「寧城縣小塘土溝遼墓」, 『內蒙古文物考古』 1期.

44 李逸友(1991), 「內蒙古遼代契丹人墓葬的形制和分期」, 『北方民族文化』 增刊.

45 項春松(1981), 「昭盟地區的遼代墓葬: 兼談遼墓分期及其隨葬器物的斷代問題」, 『內蒙古文物考古』 創刊號.

46 임상선(2019), 「渤海 멸망 후 건립된 東丹國의 外交 활동」, 『역사와 교육』 29, 역사와 교육학회, p. 166

47 李慶發(1981), 「遼陽三道壕遼墓」, 『遼寧文物』 1.

이 안치되어 있었다.⁴⁸ 머리가 서향인 점은 거란적이지 않다.

요양부에 속하는 조양(朝陽)의 전창호촌(前窗戶村) 요대묘는 연도에 평면 원형의 이실 2개를 갖추고 현실은 평면 방형의 석실묘다. 현실 안벽에 시상은 없고 석관이 마련되었다. 조양지구 요대묘는 대개 전-중기에 속하는데 평면 방형의 석실묘가 많은 점이 지적되고 있다.⁴⁹

금주시(錦州市) 장강촌(張扛村)에서 발견된 요대묘에서도⁵⁰ 이런 현상이 보인다. 1호묘는 평면 원형의 전실묘인데 비해, 3, 4호묘는 장방형 전실묘이다. 2호묘는 평면 방형의 석실묘로서 안벽 쪽에 가형 석관이 안치되어 있다. 피장자의 두향은 동향으로 추정되므로 거란적인 장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방형 내지 장방형 평면을 띤 석실묘의 존재는 발해 고분을 연상시킨다.

건평현(建平縣) 서요천(西窯村) 요대묘는 연도가 중앙에 달리고 평면은 갈매기 형태인 궁륭형 석실묘다. 안벽 쪽에 마련한 목제 시상 위에 부부가 합장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거란인묘와 달리 머리가 서향이다. 부장품이나 시상을 고려하면 거란인묘라고 할 수 있으나 역시 석실묘란 점에서 주목된다.

심양시(沈陽市) 강평현(康平縣) 해주(海州)의 해주향(海洲鄉)에서 3기의 요대묘가 발견되었다. 1호묘는 평면 방형의 단실 석실묘, 2호묘는 평면 장방형의 전실묘, 3호묘는 평면 방형의 전실묘였다.⁵¹ 그 후 1기가 더 발견되었는데 방형의 전실묘로서 중앙 연도식이다.⁵² 남북 장축의 무덤 연도쪽, 즉 남쪽에 머리를 둔 성인 남성의 인골이 1구 발견되었다. 장축 방향에 따라 북향이나 남향으로 머리를 두는 풍습은 거란인묘에서는 보기 힘들고 발해

48 李慶發(1986), 「遼陽隆昌兩座遼金墓」, 『遼海文物學刊』 2.

49 靳楓毅(1980), 「遼寧朝陽前窗戶村遼墓」, 『文物』 12.

50 劉謙(1984), 「遼寧錦州市張扛村遼墓發掘報告」, 『考古』 11.

51 張少青(1988), 「遼寧康平發現的契丹遼墓概述」, 『北方文物』 4.

52 武家昌(1988), 「康平海洲遼墓清理簡報」, 『遼海文物學刊』 1.

고분에서 일반적이다. 해주향(海洲鄉)의 요대묘는 방형 평면이 일반적인 점, 석실과 전실이 혼재하는 점이 주목된다.

이렇듯 요의 상경도, 중경도, 동경도 등지에서는 전형적인 요대 거란인묘와 많은 차이를 보이는 무덤들이 광범위하게 분포한다. 묘지가 없는 상황에서 피장자의 성격을 간단히 논할 수는 없으나 발해고분에서 보이던 고유한 특색이 요대묘에 잔존하는 현상은 발해유민의 존재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 발해유민이 묻혀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발해 묘제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요 초기의 거란인묘도 있을 것이다.

요의 건국 이전에 발해의 영토였던 길림성 일대, 흑수말갈의 활동무대였던 흑룡강성에서도 흥미로운 현상이 관찰된다.

길림성 백성시(白城市) 관할 대안시(大安市) 철서촌(鐵西村)에서는 평면 방형의 석실묘가 발견되었으며,⁵³ 쌍료현(雙遼縣) 고력과(高力戈) 요대묘는 평면 장방형의 전실묘, 장방형 수혈 토광묘로 구성되어 있다.⁵⁴ 전형적인 요대 거란인묘와 차이가 많이 나는데 보고자는 요대 평민묘로 간주하지만 이렇게 간단히 처리될 문제가 아니다. 요의 영역 내에서 일반적인 요대묘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의 무덤들이 있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흑룡강성 제제합이시(齊齊哈爾市) 매리사(梅里斯) 장강촌(長崗村)의 요대묘는 평면 장방형의 수혈 토광묘로서 관곽 등의 장구는 없다. 단인장이며 두향은 서향이어서 거란인묘와 다르다.⁵⁵ 피장자를 무장(武將)이라고 간단히 정의하지만 그보다는 거란, 발해와는 다른 종족이 묻힌 요대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제제합이시 태내현(泰來縣)에 분포하는 요대묘는 구조적으로 평면 장방형의 수혈식 전곽묘이며 철제 무기와 등자 등이 부장되어 피장자의 무사적 성격을 보여 준다.⁵⁶

53 龐志國(1991), 「大安市鐵西村遼代墓葬」, 『中國考古學年鑒』, 文物出版社.

54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1986), 「吉林雙遼縣高力戈遼墓群」, 『考古』 2.

55 崔福來·辛建(1993), 「齊齊哈爾市梅里斯長崗遼墓清理簡報」, 『北方文物』 1.

56 丹化沙(1960), 「黑龍江泰來遼墓清理」, 『考古』 4; 林楊(1981), 「泰來縣塔子城遼墓」, 『黑龍

제제합이시 서편의 용강현(龍江縣) 이촌(二村)에서는 관과 괘이 없는 수혈 토광 내에 머리를 서쪽으로 두고 매장된 단인장묘가 분포한다. 보고자는 요대 빈민의 묘로 보지만⁵⁷ 두향을 보듯이 거란인과는 다른 종족의 무덤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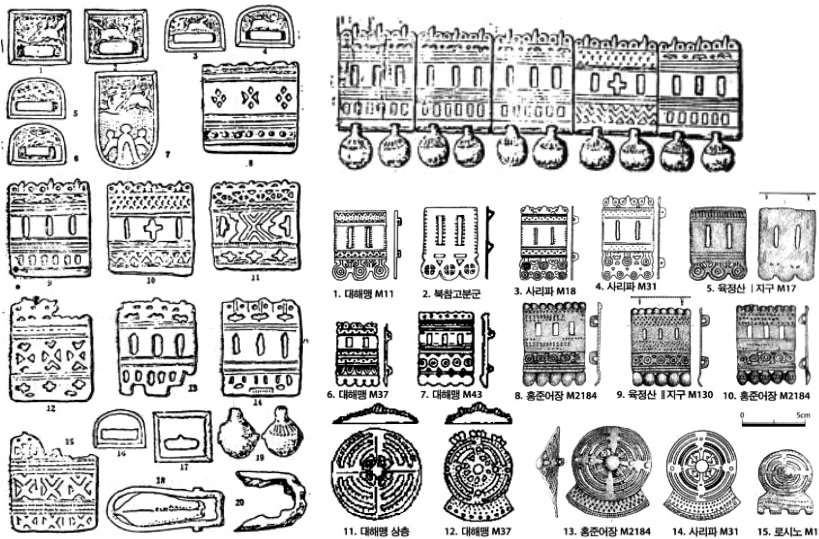
흑룡강성 동북편에 위치한 흑하시(黑河市) 카륜산(卡倫山)에서는 장방형의 수혈토광묘에 관곽을 갖추지 않은 무덤들이 분포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요대의 여진인묘로 보고 있다.⁵⁸

흑룡강성 동편의 수빈현(綏濱縣) 신성(新城)의 요대묘 2기는 장방형의 수혈토광묘인데, 부장품 중에 말갈 패식이라⁵⁹ 불리는 패식형 과대금구 1점, 당식대금구 1점이 발견되었다. 영길 사리파 출토품과 유사하여 발해 문화와의 연관성이 인정된다.⁶⁰ 문제는 사리파고분군은 말갈계 발해인의 무덤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신성 요대묘 피장자는 발해 국가를 경험하였던 말갈인, 혹은 여진인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외에도 수빈현(綏濱縣) 일대에서는 요대에서 금대에 걸친 무덤들이 삼호(三號),⁶¹ 중흥(中興), 영생(永生),⁶² 오리미(奧里米)⁶³ 등지에 집중 분포한다. 구조가 요묘와 너무 다르고 양신직지장, 이차장, 화장 등 다양한 장법을 보인다. 삼호(三號)고분에서는 패식형 과대금구 1세트가 출토되었다([그림 5]). 이 무덤에 매장된 집단에 대해서는 흑수말갈, 오국부(五國部), 여

江文物叢刊』創刊號.

- 57 金鑄(1987), 「黑龍江龍江縣李村古墓群調查」, 『北方文物』 1.
- 58 李陳奇·郝思德(1986), 「黑河市卡倫山遼代女眞墓葬」, 『中國考古學年鑒』, 文物出版社.
芸薇·金源(1987), 「黑龍江畔的卡倫山古墓葬」, 『黑河學刊』 4.
- 59 중앙문화재연구원 엮음(2021), 『발해고고학』, 학술총서 46, 진인진, pp. 242-243.
- 60 郝思德(1989), 「黑龍江綏濱新城遼代墓葬」, 『博物館研究』 3.
- 61 干志耿(1993), 「綏濱三號遼代五國部墓群清理紀要」, 『探蹟索隱集』, 黑龍江人民出版社.
- 62 田華·胡秀杰·周美茹(1992), 「黑龍江省綏濱永生墓群原貌」, 『北方文物』 3.
- 63 권오영(2022), 『부여·고구려·발해 고분과 유라시아 북부 고분의 비교』, 한국학중앙연구원, p. 303.



출처: 干志耿(1993), 「綏濱三號遼代五國部墓群清理紀要」, 『探蹟索隱集』, 黑龍江人民出版社.

[그림 5] 발해의 패식형 과대금구(우하)와 삼호묘군(三號墓群) 출토 과대금구(좌), 복원상태(우상)

진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⁶⁴

이렇듯 흑룡강성 일대에서 시간적으로는 요대에 속하지만 전형적 요묘와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묘제와 장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요의 경역 내에 다양한 종족집단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요대묘를 거란인묘와 한인묘로 양분할 수 없음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중국 학계에서는 실위인과 해인의 무덤만을 인정하지만 발해유민, 말갈(여진), 오국부 등도 나름의 특색 있는 묘제와 장제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64 孫秀仁·干志耿(1982), 「論遼代五國部及其物質文化特徵: 遼代五國部文化類型的提出與研究」, 『東北考古與歷史』 1.

4. 맺음말

발해유민의 흔적은 요만이 아니라 고려, 금과 원에서도 확인된다. 다만 그 농도와 성격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금의 경우는 그 건국과정에서 발해유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⁶⁵ 금의 조정에 관리로 참여하는 발해유민의 수가 많았으며, 금의 황실에 발해유민들이 황후나 후비로 활동하고 고위 관료로 복무한 사실을 감안하면⁶⁶ 금대묘에서도 발해유민의 존재를 추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고고학적 물질문화를 통해 정체를 드러낸 금대 발해유민은 장호(張浩)와 그의 아들 장여유(張汝猷) 정도다. 장여유의 경우는 북경에서 출토된 것으로 알려진 묘지의 내용이 알려져 있지만 이 묘지가 묻혀 있던 무덤의 구조에 대한 정보는 없다. 이들의 활동을 통하여 발해유민들이 통혼 등의 방법을 통해 금에서 비교적 높은 세력을 유지하였음은 규명되었으나⁶⁷ 그들의 존재양태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무덤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다. 이 글에서는 요대묘만을 대상으로 삼았지만 앞으로 금대묘로 연구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요와 금, 원으로 이어지는 왕조의 변동 속에서 발해유민들의 디아스포라는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새로운 왕조의 권력 심장부 깊숙이 진입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신속히 버린 경우, 집단을 이루고 경계인으로서의 행보를 보인 경우 등 그 편차는 매우 크다.

장기간에 걸친 발해유민 디아스포라를 구체적으로 복원하는 작업은 문헌자료를 치밀하게 정리하여 발해유민의 천사와 거주구역을 정리하는 것

65 김위현(2007), 「금(金) 건국과 발해유민: 중화인민공화국 학자들의 주장에 대한 토론」, 『고구려연구』 29, 고구려연구회.

66 김위현(2009), 「금대 발해인의 향방」, 『한민족연구』 7, 한국민족학회.

67 방경일(2006), 「金代 墓誌銘에 실린 渤海遺民」, 『백산학보』 76, 백산학회; 권은주(2020), 「금대 발해유민 張汝猷 묘지명 검토」, 『한국고대사탐구』 34, 한국고대사탐구학회.

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다음은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발굴조사된 고고학적 자료를 꼼꼼하게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와전류나 건축물, 유라시아 동부의 고분문화에 대한 이해가 더해져야 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유라시아 동부의 다양한 종족에 대한 거시적이면서 깊은 안목이 필요하다. 우리는 흔히 말갈의 거주 지역과 문화에 대해 단순화시켜서 설명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리 간단치 않다. 고구려가 존속할 당시 이웃한 말갈, 발해국가 내의 말갈, 발해에 편입되지 않은 말갈, 요대의 말갈, 요에 편입되지 않은 말갈, 금 발흥기의 말갈-여진의 물질문화를 변별하는 작업은 가능한가? 말갈이라고 통칭되었지만 이들이 단일한 물질문화를 영위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말갈이라 불린 다양한 집단의 경계를 고고학적 자료를 근거로 삼아 획정할 수 있을까? 연해주지역처럼 고대-중세 국가의 흥망과정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던 지역에서 말갈 무덤의 변천은 고구려-발해-요-금이란 국가단위 변화에 어느 정도 연동할까? 궁극적으로는 고구려묘, 발해묘, 요대묘, 금대묘의 지역색과 종족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게 된다. 결국 발해유민 디아스포라를 고고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의 개발과 함께 한국사 대 중국사라는 일국사적 인식의 극복이 우선되어야 함을 확인하게 된다.

참고문헌

- 권오영(2022), 『부여·고구려·발해 고분과 유라시아 북부 고분의 비교』, 한국학중앙연구원.
- 권은주(2020), 「금대 발해유민 張汝猷 묘지명 검토」, 『한국고대사탐구』 34, 한국고대사탐구학회.
- 김위현(2009), 「금대 발해인의 향방」, 『한민족연구』 7, 한국민족학회.
- 김위현(2007), 「금(金) 건국과 발해유민: 중화인민공화국 학자들의 주장에 대한 토론」, 『고구려연구』 29, 고구려연구회.
- 김위현(2007), 「요대의 발해유민 연구: 중화인민공화국 학자들의 논저에 대한 토론」, 『고

구려연구』29, 고구려연구회.

金渭顯(1998), 「渤海遺民과 後渤海 및 大渤海」, 『발해건국 1300주년』.

金恩國(2011), 「南北國時代論과 渤海 Diaspora」, 『고구려발해연구』40, 고구려발해학회.

金在善(2005), 「契丹의 渤海遺民 移住政策의 要因」, 『신라문화』26, 동국대학교 신라문화 연구소.

나영남(2017), 『요금시대 이민족 지배와 발해인』, 신서원.

羅永男(2013), 「契丹의 渤海遺民에 대한 移住政策」, 『동양사학연구』124, 동양사학회.

뤼스핑(2004), 「요대 묘실벽화의 발굴과 연구」, 『미술사논단』19, 한국미술연구소.

바이건성(2008), 「고구려·발해 유민 관련 유적·유물」, 『중국 학계의 북방민족·국가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박순우(2022), 「‘발해유민’인가 ‘발해인’인가?」, 『역사비평』140, 역사비평사.

박순우(2020), 「요대 발해인 고모한(高模翰)관련 기록의 검토와 후손들의 활동 연구」, 『동방학지』191,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박순우(2020), 「요대 발해인 정치체로서의 兀惹部 연구」, 『대동문화연구』109,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박순우(2019), 「10~14세기 ‘발해인’ 정체성의 변질과 진화」, 『한국사연구』184, 한국사연구회.

박홍갑(2007), 「발해 유민 대씨의 한반도 정착 과정: 영순현과 영순태씨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16.

방경일(2006), 「金代 墓誌銘에 실린 渤海遺民」, 『백산학보』76, 백산학회.

徐炳國(2006), 「渤海遺民史 研究」, 『고구려연구』25, 고구려발해학회.

송영대(2017), 「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본 渤海 유민의 고려 이주 양상과 특징 검토」, 『동아시아고대학』46, 동아시아고대학회.

李龍範(1973), 「遼代 東京道の 渤海遺民」, 『史叢』17, 鄭在覺博士華甲紀念論叢,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李龍範(1973), 「遼代 上京·中京道の 渤海遺民」, 『백산학보』15, 백산학회.

이효형(2020), 「발해 유민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역사와 세계』57, 효원사학회.

이효형(2018), 「동아시아 境界人으로서의 渤海人과 渤海遺民」, 『동아시아고대학』52, 동아시아고대학회.

이효형(2015), 「발해 유민사 관련 고고학 자료의 검토」, 『고구려발해연구』52, 고구려발해학회.

이효형(2007), 『발해 유민사 연구』, 혜안.

이효형(2006), 「발해 부흥국가와 고려의 발해 계승의식」, 『역사와 경계』60, 부산경남사학회.

이효형(2006), 「발해의 멸망·유민사에 대한 연구현황과 과제」, 『부대사학』30.

이효형(2005), 「渤海의 멸망과 遺民의 諸樣相: 東丹國 관련 渤海遺民을 중심으로」, 『백산학보』72, 백산학회.

李孝珩(2002), 「발해 유민의 大渤海 건국과 고려와의 관계」, 『백산학보』64, 백산학회.

- 임상선(2019), 「渤海 멸망후 건립된 東丹國의 외교활동」, 『역사와 교육』 29, 역사와 교육학회.
- 임상선 편(2019), 『새롭게 본 발해 유민사: 불굴의 사람들, 발해 유민 이야기』, 동북아역사재단.
- 林相先(2017), 「渤海國과 契丹(遼) 關係史의 研究爭點과 向後 課題」, 『중국사연구』 106, 중국사학회.
- 임상선(2014), 「북방지역 種族의 繼承關係 검토: 靺鞨·女眞·滿洲族을 중심으로」, 『고구려발해연구』 50, 고구려발해학회.
- 임상선(2013), 「遼代 渤海人의 再遷徙 事由와 그 內容」, 『백산학보』 97, 백산학회.
- 조윤재(2021), 「요·금」, 『동북아시아 고고학개설Ⅱ: 역사시대 편』, 동북아역사재단 북방연구소편.
- 중앙문화재연구원 엮음(2021), 『발해고고학』, 학술총서46.
- 한규철(1994), 『발해의 대외관계사』, 신서원.
- 干志耿(1993), 「綏濱三號遼代五國部墓群清理紀要」, 『探賸索隱集』, 黑龍江人民出版社.
- 靳楓毅(1980), 「遼寧朝陽前窗戶村遼墓」, 『文物』 12.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1986), 「吉林雙遼縣高力戈遼墓群」, 『考古』 2.
- 金鑄(1987), 「黑龍江龍江縣李村古墓群調查」, 『北方文物』 1.
- 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1991), 「寧城縣小塘土溝遼墓」, 『內蒙古文物考古』 1期.
- 丹化沙(1960), 「黑龍江泰來遼墓清理」, 『考古』 4.
- 東潮(2007), 「遼代壁畫資料」, 『人文社會文化研究』, 德島大學總合科學部.
- 武家昌(1988), 「康平海洲遼墓清理簡報」, 『遼海文物學刊』 1.
- 龐志國(1991), 「大安市鐵西村遼代墓葬」, 『中國考古學年鑒』, 文物出版社.
- 白勁松(1989), 「陳巴爾虎旗西烏珠爾古墓清理簡報」, 『遼海文物學刊』 2.
- 蘇日泰(1982), 「科右中旗巴扎拉嘎遼墓」, 『內蒙古文物考古』 2.
- 孫秀仁·干志耿(1982), 「論遼代五國部及其物質文化特徵: 遼代五國部文化類型的提出與研究」, 『東北考古與歷史』 1.
- 芸薇·金源(1987), 「黑龍江畔的卡倫山古墓葬」, 『黑河學刊』 4.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阜新市文化局文物組·阜新縣文物管理所(1991), 「阜新海力板遼墓」, 『遼海文物學刊』 1.
- 劉謙(1984), 「遼寧錦州市張扛村遼墓發掘報告」, 『考古』 11.
- 李慶發(1986), 「遼陽隆昌兩座遼金墓」, 『遼海文物學刊』 2.
- 李慶發(1981), 「遼陽三道壕遼墓」, 『遼寧文物』 1.
- 李宇峰(1993), 「遼寧阜新縣大固本遼墓發掘簡報」, 『博物館研究』 2.
- 李逸友(1991), 「內蒙古遼代契丹人墓葬的形制和分期」, 『北方民族文化』 增刊.
- 李陳奇·郝思德(1986), 「黑河市卡倫山遼代女眞墓葬」, 『中國考古學年鑒』, 文物出版社.
- 林揚(1981), 「泰來縣塔子城遼墓」, 『黑龍江文物叢刊』 創刊號.
- 張少青(1988), 「遼寧康平發現的契丹遼墓概述」, 『北方文物』 4.
- 田華·胡秀杰·周美茹(1992), 「黑龍江省綏濱永生墓群原貌」, 『北方文物』 3.

- 陳永志(2011), 「出土文物から見た契丹人の葬送習俗」, 『草原の王朝 契丹』, 九州國立博物館.
- 崔福來·辛建(1993), 「齊齊哈爾市梅里斯長崗遼墓清理簡報」, 『北方文物』1.
- 巴林右旗博物館(1992), 「巴林右旗烏珠日山發現一座遼墓」, 『內蒙古文物考古』1·2期.
- 郝思德(1989), 「黑龍江綏濱新城遼代墓葬」, 『博物館研究』3.
- 項春松(1982), 「上燒鍋遼墓群」, 『內蒙古文物考古』2.
- 項春松(1981), 「昭盟地區的遼代墓葬: 兼談遼墓分期及其隨葬器物的斷代問題」, 『內蒙古文物考古』創刊號.

원고 접수일: 2023년 1월 16일, 심사완료일: 2023년 2월 9일, 게재 확정일: 2023년 2월 9일

ABSTRACT

Archaeological Evidence of the Diaspora of Balhae Displaced People

Kwon, Ohyoung*

There are many historical records that show the reality of the diaspora of the displaced people after the fall of Balhae, but archaeological evidence has received little attention. Among the tombs of the Liao Dynasty, the reason why the tombs of the Balhae and Korean people cannot be distinguished, whereas the tombs of the Khitan and Han people can be distinguished, is due to the lack of a critical perspective and methodology.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tombs of the Liao Dynasty were individually examined, and many tombs similar to the ancient tombs of Balhae were identified. However, it is judged that the ethnic identity of the Balhae people was not completely maintained because Khitan-like elements could also be observed in terms of funerary practices.

Keywords Balhae Displaced People, Diapora, Khitan People, Han People, Stone Chamber Tomb with Horizontal Entrance, Corpse/Coffin Panel

*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